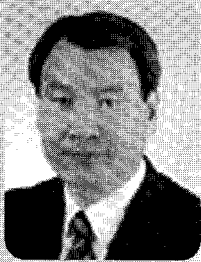


한국은 정말 좋은 친구



정문택

경기안양석수도서관장
mi0119@anyang.go.kr

2008년 10월말, 7일간의 일정으로 이라크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12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철수를 앞두고 마지막 「한국 - 쿠르드 우정의 날 행사」와 「자이툰 도서관 준공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이툰 도서관 건립의 의미

자이툰 도서관은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지난 4년간의 평화·재건사업을 총 정리하는 사업의 하나로 아르빌 중심부 공원안에 건립하였다. 이 도서관은 아르빌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다혹 주와 술레마니아 주 등 쿠르드 지방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의 관할 지역에서도 보기드문 초현대식 다목적 도서관으로 아르빌의 '랜드마크'로 주목 받고 있었다.

도서관의 건립은 2년 전 허허벌판이던 도서관부지에 조감도 하나를 걸어놓고 아르빌 주정부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당시 아르빌 지역 주민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쟁의 공포 속에 서로간에 불신하며, 탐욕과 경쟁, 배반으로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며, 마지막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영원한 유산으로 자이툰 도서관이라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건립하여 기증하게 된 것이다.

* 이 글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는 자이툰부대에서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폐허 속의 아르빌에서 책은 주민들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좌절과 절망, 방황, 고통 등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매개체가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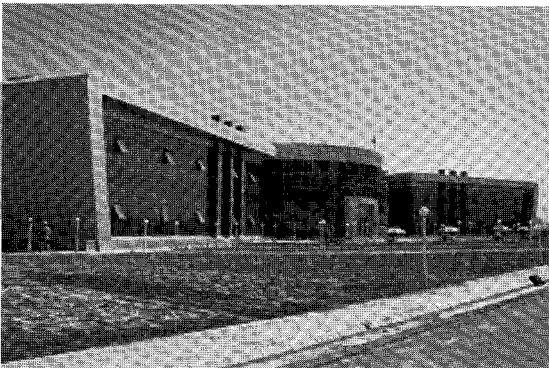
자이툰 부대가 건립한 도서관은 한국과 이라크 양국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원한 상징이 되어, 자이툰 부대는 도서관과 한국인의 우정이라는 두가지 큰 선물을 한 셈이다.

자이툰 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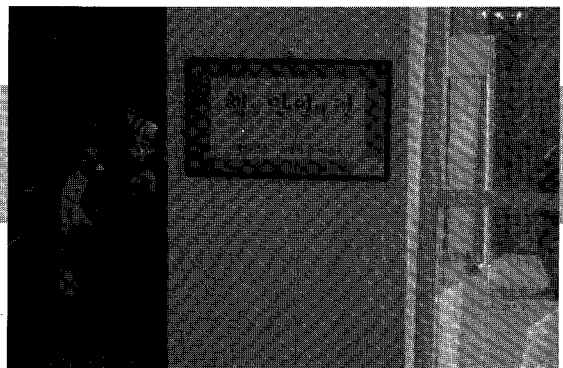
자이툰도서관이 설립된 장소는 아르빌 시내에 있는 아르빌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때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군사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던 곳이다. 이러한 장소에 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아르빌 시민들에게 주는 정신적 교훈과 공공도서관이라는 의미는 일반 도서관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자이툰 도서관이 준공되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모든 물자를 군 수송기로 공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2007년 5월 19일에 착공하여 약 18개월 동안 446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3만7천500㎡ 부지에 3천 966㎡의 규모로 지상2층의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살려 향후 아르빌 지역에서는 현대적 건물의 대표 시설로서 지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축한 건물이다. 특히 건물의 외형도 아름답지만 아직도 이라크라는 국가의 안정되지 않은 지역분위기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외부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만들어 향후 건물의 구조안전을 위해 신공법을 도입하여 건립한 건물이다.

내부 시설물의 일반적인 특징도 우리나라의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바닥 면적이 넓은 장방형으로 하고 공간구성을 4구역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1구역은 도서관 자료실 및 일반열람실, 2구역은 파병기념관과 한국홍보관, 3구역은 다목적실로 컴퓨터실과 시청각실이 있고, 4구역은 취미교실과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강당으로 시설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어 군집형태로 배치한 점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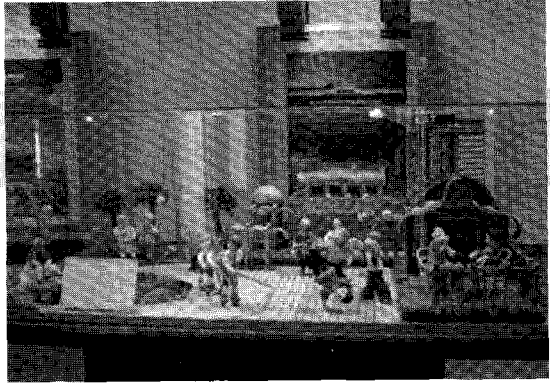


▲ 자이툰 도서관 전경



▲ 도서관 1층에 설치된 준공기념작품

이러한 개념의 도서관 건축물은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중성을 수용하는데 편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낯선 느낌을 받지 않고 문화교육과 정보접근의 용이성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자료실 1층 석수도서관 코너 ▲ 한국 홍보관 전시코너

또한 아르빌 시민의 일반적 문화 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로서, 자이툰 부대의 활약상을 담은 과병기념관과 특히 도서관내에 재과점, 헤어숍, 수공예점, 문구점 등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생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스포츠, 산업 등을 소개하는 한국 홍보관 등을 마련하여 대도시의 문화유산으로 형성되도록 건립하였다. 특히 문화의 대중성과 내부 공간구성과 동선을 최대한 살리고자 도서관 위치도 아르빌 주청사 및 관공서와 가까운 곳에 건립하여 교육과 문화발전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좋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직원은 총 56명으로 인력은 많은 편이나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직은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1층에 마련한 252㎡ 규모의 어린이 전용 자료실은 2007년 이라크 자이툰 도서관 직원들이 우리 석수도서관을 방문했을 당시의 시설견학을 참고로 내부 시설이 타 자료실에 비해 다소 훌륭한 편이었다. 57개의 서가와 108석의 열람테이블 등 공간배치와 어린이용 도서 약 1만권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어린이자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과 자료실 내부 모습

또한 1-2층에 마련된 일반자료실은 쿠르드어책 6만권, 안양 석수도서관 등 국내에서 전달한 책 17,500권, 미국 등 해외기관에서 기증한 책 13,000권 등 약 10만 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시청각실과 정기간행물실, 컴퓨터실, 강당, 일반 열람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준공식 당시 바르자니 KRG총리는 1898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발행된 최초의 쿠르드어 신문인 쿠르디스탄 신문 원본을 현장에서 기증하며, 이제 아르빌 주에 도서관이 설립됨으로써 교육과 문화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아르빌 지역주민은 자이툰 도서관 설립을 통해 쿠르드 지역민들이 세계 최신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되었고, 특히 여러 국제도서박람회 개최와 유명한 출판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자이툰도서관을 통한 한국과 이라크간의 교류

우리 도서관과 자이툰 도서관과의 인연은 2008년 3월 국방부와 경기도가 이라크 쿠르드자치공화국 아르빌시에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5월 한국을 방문한 이라크 도서관 관계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필자가 담당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우리 도서관을 견학했던 이라크와 경기도 및 국방부 관계자들은 도서관운영의 우수성을 인정해 자매결연을 요청하였고, 2008년 7월 31일 국제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자매결연 협정식 체결 장면

▲ 자매결연 협정식 기념사진

이번 자이툰 도서관 준공식과 관련하여 공식 초청되어 방문하였을 때에도 2008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방한하여 도서관 시설을 돌아보고 교육을 받았던 자이툰 도서관 관계자들이 필자를 알아보고 비록 언어가 달라 직접적인 대화는 나눌 수 없었지만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다.

이라크 아르빌주는 이라크 북쪽 쿠르디스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쿠르드족 자치구의 수도이다. 인구는 2008년 현재 120만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 도체제와 유사하며 예하부서로는 전기국, 보건국, 교육국, 건설국 등 75개국에 달한다. 인구의 약 98%가 쿠르드족이며 언어는 쿠르드어와 아랍어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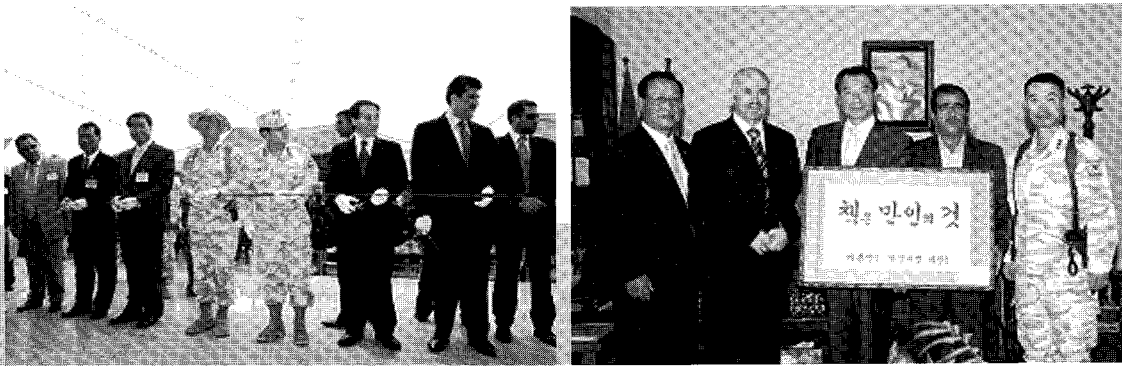
■ 이라크 개요

- 국명 : 이라크 공화국(1923. 10. 3 : 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치 : 내각 중심의 공화정(신정부 출범; '06. 5. 20)
- 위치 / 수도 : 아라비아 반도 동북부, 이란만 북부 / 바그다드
- 면적 : 43,5만km²(한반도의 2배) / 18개주로 구성
- 인구 : 약 2,980만 명, 출산율(여성 1인당 4.2명)
- 국경 : 약 3,668km
 -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란, 쿠웨이트 6개국과 접경
- 종족 : 시아 60%, 수니 35%, 기타 5%
- 종교 : 이슬람 97%, 기독교 3%
- 1인당 GNP : \$ 1,452('07년) / 석유 생산량 : 1일 250만 배럴
- 지형
 - 사막(50%), 평원(25%) 기타 산악 및 산림
 - 2대강 : 티그리스강(1,850km), 유프라테스강(2,359km)



특히 이번 이라크 방문시에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의 손석우 이사장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는 2001년부터 민족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할린, 브라질 등 지난 7년 동안 17개국 재외동포들에게 약 25만여 권의 양서를 보냈으며, 특히 지난 5월 자이툰 부대에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우리 시에서는 아르빌 주청사에 우리 시의 전경사진(85×58cm)을, 그리고 자이툰 도서관에는 “책은 만인의 것”이라는 서예작품(85×58cm)을 증정하였다. 또한 우리시의 각종 시정홍보자료는 물론 도서를 기증하여 양국 간의 도서 교류와 지역민을 위한 자료열람코너를 마련키로 했다.



▲ 자이툰 도서관 준공식 테이프커팅 ▲ “책은 만인의 것” 서예작품 증정

이라크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 접해있어 세계4대 문명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문명의 발상지로서 한때는 번영과 영광을 누려왔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폐된 도시의 모습에선 옛날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의 4년여 주둔을 계기로 치안 · 교육 · 의료 · 사회 분야의 재건사업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려고 하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과거 우리나라 또한 중국 대륙과 연결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아 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이라크는 어딘지 서로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자이툰 부대가 상주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은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후세인 정권에 의해 많은 학살과 억압을 당해 왔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독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치권을 인정받아 쿠르드 자치정부(KRG)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이툰 도서관 준공식’과 ‘한·쿠르드 우정의 날’ 행사에 초청받은 필자는 이라크를 방문하여 KRG 총리와 아르빌 주지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해 “우리는 좋은 친구”라며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이툰 부대가 지원해 준 업적을 통해 한국정부에 또 다

른 '우정'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하였고 한국의 회사와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많은 기업 활동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 한·쿠르드 우정의 날 행사 장면 ▲ 쿠르드인들의 전통 초피댄스공연

'자이툰' 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를 지칭하듯 자이툰 도서관 역시 인종·종교의 편견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식의 집합체로서 오랫동안 평화의 상징물로 기록됨과 동시에 아르빌 주민들에게는 영원히 한국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적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2014